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1호 [루게 제24464호] 주체103(2014)년 2월 20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인민무력부 제1부 부장인 조선인민군 특군상장 서홍찬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황병서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12일이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공정을 컴퓨터화, 무인화, 무진화, 무균화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와 공장의 로동계급들,련판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힘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무인화되고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당과류의 맛도 친히 보아주시면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원료배합과 숙성, 반죽, 구이로의 온도조절 등을 자동화한 결과 맛과 질이 대단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무진화, 무균화가 실현되어 식료공장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게 되

과업을 짧은 기간에 결사관철 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3개월만에 공장을 또다시 찾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 종합조종실, 사랑작업반, 과자작업반, 콩사탕, 콩강정작업반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의 력사가 어려워있는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의 생산공정현대화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인 과업을 주었는데 그것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할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종합조종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현장감시기능만을 수행하던 곳이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감시, 조종, 지령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지능화된 조종실로 전변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여러 당과류작업반들의 현대화가 실현됨으로써 원료투입으로부터 생산,

였으며 소음공해를 없애고 배풍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로동자들이 흥겨운 로동생활을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생산공정현대화가 전반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식의 현대화, 당에서 바라는 현대화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성명, 담화 발표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기르키즈스탄에서는 집회, 로드니야에서는 업적토론회, 집회가 3일과 4일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기르키즈스탄 《키르키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주체사상연구소, 평명성절경주 로드니야준비위원회, 로드니야사회주의동맹당, 근로자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기르키즈스탄 《키르키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소장인 장인자, 인민의 어머니이시었다. 당시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그의 탄생을 민족의 밝은 태양을 기약해주는 일대 사변으로 간주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뽕재산의 아들답게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조선인민은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고있다.

2월 16일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었다. 로드니야사회주의동맹당 위원장 콘스탄틴 로마루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 세계사주화위업수행을 위해

여 영구불멸한 업적을 쌓으시었다. 그는 조선을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되면 국제법도 인종에 없이 내장간섭과 무력행사를 일삼는 미국이 유독 조선에 대해서는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다 조선이 위력하기 때문이다.

그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신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의 위협세력의 온갖 도전을 성과적으로 물리치면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세상이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시었다.

로드니야근로자협회 위원장 다니엘 데리우는 다음과 같이 격찬하시었다.

김정일각하는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인민의 어머니이시었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조선로동당의 영연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있으며 그의 탄생일을 평명성절로 경축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개척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 전진시키으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뜻밖에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조선을 침략시키려고 발악하여도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붙

친 조선인민의 힘을 절대로 꺾을수 없다.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주체사상연구소가 8일 공동으로 축하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2월 16일은 선군래왕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민들은 이날을 평명성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105양곡사단에 선군혁명명령의 첫 자욱을 새기시었다으며 1964년 6월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힘있는 고무적기치로 되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하여 여러 로작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현대수정주의자들, 사회주의의 배신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뒤따라가는 안기시었다.

또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펼쳐시어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승리를 안아오시어 조선을 핵억제력을 갖춘 강국강국, 사회주의의 보루로 전변시키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천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조선인민의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었다.

우리는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김정일-김정일주의기치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며 반드시 화평승리를 이룩할것이다.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만만사람들이 4일과 5일 담화를 발표하시었다.

방글라데시선군정치연구소위원장 양, 자한기르 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었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김정일동지는 김정일주의에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의 국력을 비강화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짓부시고 조선을 불멸의 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으며 세계사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만나 미르 타르드출판사 총사장 마웅 마웅 나잉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 72주년에 즈음하여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경사스러운 시기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위업에 바치신 불멸의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동지는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어 나라의 통성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주의의 위업을 계승하신 그이께서는 수령의 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의 당, 국가, 군대를 수령의 당,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조선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었다.

오늘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을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노력하시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 주체사상과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을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선도 40돌에 즈음하여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선도 40돌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주체사상연구소가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시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74년 2월 19일 고전적로작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었다.

로작이 발표된 후 조선혁명발

전과 조선로동당의 사상사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의의 당으로 보다 강화발전되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되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위력은 비강화되었으며 조선의 일일단결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고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등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사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심화발전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의 열망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의 일심단결을 과시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가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시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 주체사상과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을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이께서 쌓으신 업적에 도달하지 못할것이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섰다. 김정은원수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밝은 미래를 체현하고 계신다.

그이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앞으로 더욱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한다.

김정은원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인도하시었다. 조선인민의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만세!

불순한 기도가 깔린 《위협》나발

미국이 국제사회에 우리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끈질기게 광고하고있다. 이번에는 태평양지역 인민총상명관 롤러리도 광고에 나섰다. 그는 우리를 결코 남조선과 세계를 《위협》하는것은 용납할수 없다는, 미국자제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취지 하면서 우리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일본과의 미사일방위체계협력을 강화할것이며 남조선의 협력도 원한다고 수선을 떨었다.

이것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가리키려고 하는 꾀비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하다. 력사적으로 보아도 우리 나라의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지 언제 한번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적이 없다.

지난 조선전쟁시기부터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끊임없는 핵공갈을 일삼아왔다. 올해에도 미국은 남조선에서 위협천만한 핵시험전쟁을 거듭 강행하고서 하고있다.

남조선을 극동화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킨 핵전쟁광산자들이 본토에 있는 핵전쟁장비들까지 투입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시험전쟁을 계속 통행하고, 광탄적으로 버려진다고 우리의 《위협》을 떠벌어대는것은 도저히 도저히 하는 격이 아닐수 없다.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미국이 잊지도 않는 《핵 및 미사일위협》을 광고하는데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 힘으로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제압하고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지는것이 미국의 최종목적이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시아의 대국들이 저들에게 맞설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나지 못하도록 포위환을 형성하고 군사적으로 억제해나간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주둔을 강화하고있다. 해군부력의 60% 이상이 이미 이지역에 전개되어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은 저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중세력들과의 침략적인 군사동맹강화에 커다

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국은 3각군사동맹을 모체로 아시아판나토를 조악하여 주변대국들을 견제하고 군사적위협을 유지강화해버리고 꾀하고있다. 요즘 미당국자들의 입에서는 미일동맹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과 안정의 기초로 되며 두 나라는 세계적범위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 남조선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자이며 하루빨리 장래를 극복하고 판계를 개척하기 바란다. 소리가 자주 튀어나오고있다. 롤러리가 《핵 및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안보분야에서 일본, 남조선과의 협력강화의 《중요성》을 력설한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기도를 다시금 드러낸것의 다른것이 아니다. 얼마전 미국신문 《위싱턴 타임스》에 게재된 이진 미태평양함대 사령관의 《지금 아시아판나토를 창설해야 할 때》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과 작전적기도를 다른 글이다.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이 필요한다는 력설하는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것이 전지구적인 미사일포위환을 형성하여 대국들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해버리는 불순한 전략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이 필요한다는 력설하는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것이 전지구적인 미사일포위환을 형성하여 대국들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해버리는 불순한 전략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이 필요한다는 력설하는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것이 전지구적인 미사일포위환을 형성하여 대국들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해버리는 불순한 전략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미국이 잊지도 않는 《핵 및 미사일위협》을 광고하는데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 힘으로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제압하고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지는것이 미국의 최종목적이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시아의 대국들이 저들에게 맞설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나지 못하도록 포위환을 형성하고 군사적으로 억제해나간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주둔을 강화하고있다. 해군부력의 60% 이상이 이미 이지역에 전개되어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은 저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중세력들과의 침략적인 군사동맹강화에 커다

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국은 3각군사동맹을 모체로 아시아판나토를 조악하여 주변대국들을 견제하고 군사적위협을 유지강화해버리고 꾀하고있다. 요즘 미당국자들의 입에서는 미일동맹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과 안정의 기초로 되며 두 나라는 세계적범위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 남조선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자이며 하루빨리 장래를 극복하고 판계를 개척하기 바란다. 소리가 자주 튀어나오고있다. 롤러리가 《핵 및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안보분야에서 일본, 남조선과의 협력강화의 《중요성》을 력설한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기도를 다시금 드러낸것의 다른것이 아니다. 얼마전 미국신문 《위싱턴 타임스》에 게재된 이진 미태평양함대 사령관의 《지금 아시아판나토를 창설해야 할 때》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과 작전적기도를 다른 글이다.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이 필요한다는 력설하는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것이 전지구적인 미사일포위환을 형성하여 대국들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해버리는 불순한 전략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미국이 잊지도 않는 《핵 및 미사일위협》을 광고하는데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 힘으로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제압하고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지는것이 미국의 최종목적이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시아의 대국들이 저들에게 맞설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나지 못하도록 포위환을 형성하고 군사적으로 억제해나간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주둔을 강화하고있다. 해군부력의 60% 이상이 이미 이지역에 전개되어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은 저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중세력들과의 침략적인 군사동맹강화에 커다

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국은 3각군사동맹을 모체로 아시아판나토를 조악하여 주변대국들을 견제하고 군사적위협을 유지강화해버리고 꾀하고있다. 요즘 미당국자들의 입에서는 미일동맹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과 안정의 기초로 되며 두 나라는 세계적범위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 남조선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자이며 하루빨리 장래를 극복하고 판계를 개척하기 바란다. 소리가 자주 튀어나오고있다. 롤러리가 《핵 및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안보분야에서 일본, 남조선과의 협력강화의 《중요성》을 력설한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기도를 다시금 드러낸것의 다른것이 아니다. 얼마전 미국신문 《위싱턴 타임스》에 게재된 이진 미태평양함대 사령관의 《지금 아시아판나토를 창설해야 할 때》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과 작전적기도를 다른 글이다.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이 필요한다는 력설하는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것이 전지구적인 미사일포위환을 형성하여 대국들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해버리는 불순한 전략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미국이 잊지도 않는 《핵 및 미사일위협》을 광고하는데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 힘으로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제압하고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지는것이 미국의 최종목적이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시아의 대국들이 저들에게 맞설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나지 못하도록 포위환을 형성하고 군사적으로 억제해나간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주둔을 강화하고있다. 해군부력의 60% 이상이 이미 이지역에 전개되어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은 저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중세력들과의 침략적인 군사동맹강화에 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지지하여 인도네시아전국 운수로조련회가 4일 성명을 발표하시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의제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열을 하루빨리 끝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실현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을 담아 지난 1월 16일 남조선당국에 중대제안을 보낸데 이어 23일에는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때 여러 공개서한을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파,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었다.

인도네시아전국운수로조련회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여러 나라 단체들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발기를 지지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여기에는 불신과 대결의 북남판계를 신뢰와 협력의 판계로 전환시켜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실현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을 담아 지난 1월 16일 남조선당국에 중대제안을 보낸데 이어 23일에는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때 여러 공개서한을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파,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었다.

인도네시아전국운수로조련회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우리는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김정일-김정일주의기치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며 반드시 화평승리를 이룩할것이다.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만만사람들이 4일과 5일 담화를 발표하시었다.

방글라데시선군정치연구소위원장 양, 자한기르 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었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김정일동지는 김정일주의에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의 국력을 비강화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짓부시고 조선을 불멸의 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으며 세계사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만나 미르 타르드출판사 총사장 마웅 마웅 나잉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 72주년에 즈음하여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경사스러운 시기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위업에 바치신 불멸의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동지는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어 나라의 통성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주의의 위업을 계승하신 그이께서는 수령의 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의 당, 국가, 군대를 수령의 당,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조선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었다.

오늘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 주체사상과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을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우리는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김정일-김정일주의기치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며 반드시 화평승리를 이룩할것이다.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만만사람들이 4일과 5일 담화를 발표하시었다.

방글라데시선군정치연구소위원장 양, 자한기르 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었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김정일동지는 김정일주의에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의 국력을 비강화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짓부시고 조선을 불멸의 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으며 세계사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만나 미르 타르드출판사 총사장 마웅 마웅 나잉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 72주년에 즈음하여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경사스러운 시기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위업에 바치신 불멸의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동지는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어 나라의 통성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주의의 위업을 계승하신 그이께서는 수령의 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의 당, 국가, 군대를 수령의 당,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조선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었다.

오늘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 주체사상과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을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우리는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김정일-김정일주의기치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며 반드시 화평승리를 이룩할것이다.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만만사람들이 4일과 5일 담화를 발표하시었다.

방글라데시선군정치연구소위원장 양, 자한기르 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었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김정일동지는 김정일주의에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의 국력을 비강화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행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짓부시고 조선을 불멸의 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으며 세계사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만나 미르 타르드출판사 총사장 마웅 마웅 나잉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 72주년에 즈음하여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경사스러운 시기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위업에 바치신 불멸의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동지는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어 나라의 통성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주의의 위업을 계승하신 그이께서는 수령의 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의 당, 국가, 군대를 수령의 당,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조선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었다.

오늘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 주체사상과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을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